

# 다문화 밀집지역 작은도서관의 장서 대출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사례연구 -

## Analysis of Collection and Circulation for Multicultural Libraries and Policy Implications: A Case of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박은경 (Eungyung Park)\*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용자 밀집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와 대출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소장장서에 대한 장서활용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도서관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서·대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언어별, 주제별로 소장도서수, 대출수, 비중,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장서이용도를 파악하였다. 개별도서별 누적대출수를 기준으로 누적 합계를 산출하여 대출 분포와 장서이용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장서의 평가와 장서활용도를 기반으로 증거 기반의 장서개발 지침에 활용할 근거를 제공하고 다문화 도서관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assess collection and circulation data of one small library in an area where multicultural users are concentrated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multicultural services for public libraries. The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was selected for examining the library's collection and circulation usages from 2016 to 2022. The numbers of collection and circulation, collection turnover rates and use factors were calculated by year, language, and KDC sub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e empirical evidence drawn from users' circulation usage, which can be a basis for leading to valid collection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service policies.

키워드: 다문화 장서, 장서대출 데이터, 장서개발, 다문화 서비스, 다문화 이용자

Multicultural Books, Collection/Circulation Data, Collection Development, Multicultural Service, Multicultural User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eunpark@kgu.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12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77-99,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077>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다문화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듭해 온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높은 수치로 늘었고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국내 정착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국인 등록인구는 100만 명, 다문화 가구는 38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은 111만 명으로 집계된다(통계청, 2023). 다문화 가구는 이질적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형성된 가구이며 가족 구성원을 가구원이라고 한다(안산시, 2021).

도서관 분야에서도 다문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다문화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이나 외국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주로 제공하였다. 정부 지원을 받아 2009년 이후 다문화 특화도서관이 개관하고 다문화 자료실이 전국에 다수 조성되었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2013년 전국 30개에서 2021년에는 146개로 확대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그러나 도서관이 제공한 초기 프로그램 위주의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서비스는 체계적이지 않아 수준이 높지 않았고 성과 위주의 단발성 프로그램이나 지역 내 중복이나 상충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노지현, 2012; 이미정, 이미정, 2013; 조용원, 이수상, 2011). 그래서 도서관의 다문화를 다루

는 방향이 서비스나 프로그램 위주에서 도서관의 기본 업무인 다문화 소장도서를 중심으로 장서의 구성과 이용자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옥정원, 2016). 이는 다문화 이용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 장서 보유가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다문화 이용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시각에 기반한다. 또 다문화 소장도서는 다문화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도서관 분야의 다문화 장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소장장서의 구성과 이용자들의 국가별 분포를 중심으로 장서 이용도를 파악하고 있다.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들의 실제 장서이용도를 중심으로 장서의 대출 현황을 분석하여 다문화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도서를 활용하는 대출데이터의 실증적 분석은 현재까지 국내에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용자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한 다문화도서관을 사례로 장서와 대출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소장장서에 대한 활용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소장장서에서 장서의 언어별 주제별 개별도서별 대출수,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주로 하는 도서관의 실제 대출 현황을 통한 장서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지역 도서관의 증거 기반의 장서개발과 평가, 수서정책을 마련할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서관의 초기 다문화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다문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운영을 주로 다루었고 초기 다문화 환경의 어려운 점들을 설명하였다(조용완, 이수상, 2011;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 한국어 수업이나 문화 체험 위주로 시작하여(이현실, 최세민, 이형선, 2011; 조용완, 이수상, 2011), 한국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활동(임여주, 2018;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등 다방면으로 제공되었다.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서들과 서비스 이용자인 외국인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를 살펴보고(김영미, 조인숙, 2011), 프로그램 참가 후 외국인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자신감 향상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성우, 2015).

이와 같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도서관의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도우며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다문화 서비스모형들이 제안되었다(노지현, 2012;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도서관은 다문화 프로그램과 활동 위주에서 나아가 다문화 이용자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정책을 설정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제공해야 한

다고 설명하였다(이혜원, 2015;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 2.2 도서관의 다문화 장서

다문화 장서는 다문화 국가의 언어로 쓰인 자료(김인숙, 2022; 전상필, 2015)를 지칭한다. 다문화 장서는 다문화 이용자인 외국인주민의 모국어로 쓰이고 그들의 문화를 다루는 내용을 다루는 도서이다. 다문화 장서와 콘텐츠에 관하여 이미정, 이미정(2013)은 다국어 장서는 다양한 주제와 포맷의 장서들,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장서를 갖추어야 하며 유형으로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사전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외국인주민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한국인과 같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주민의 모국어로 쓰이고 그들의 문화를 다루는 다문화 장서를 갖추는 것은 다문화 이용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기본 업무로 간주한다. 특히 다문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한국인과 외국인주민들의 상호 문화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 장서의 범위에 대하여 김인숙(2022)은 경기도 다문화거점도서관의 다문화 장서 담당 사서들과 설문문을 통해 도서관 현장에서는 다문화 장서를 보다 넓은 범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쇄도서 뿐 아니라 각종 비도서 자료를 포함하는 자료로 넓게 보아야 하며, 다문화 장서는 다문화인과 한국인들이 모국과 한국을 상호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로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확대하여 이해하

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도서관에서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평가하려면 다문화 서비스 항목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한운옥, 김수경, 조미아(2009)는 캐나다도서관협회의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 개발을 위한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료, 목록, 참고 및 독자자문 서비스, 프로그램, 직원, 지역사회 활동”(한운옥, 김수경, 조미아, 2009, 107)으로 자료가 우선 포함되고 있다. 조용완, 이은주(2021)는 IFLA를 비롯한 다문화 역사가 오랜 국가에서 발행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관련 지침들을 기본으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항목을 분류하였는데, 장서/콘텐츠가 첫 번째 항목이며 “사서 인력, 서비스/프로그램, 정보이용 시설과 장비, 편의 시설, 기타”를 포함하였다. 이미정, 이미정(2013)도 다문화 서비스 항목으로 역시 장서·콘텐츠를 첫 번째로 포함하고 앞서 6개 항목에 홍보 및 대외 협력을 추가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서비스 항목은 공통으로 장서·콘텐츠를 우선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장서는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장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도서관의 다문화 연구에서 많지 않은 편이다. 조용완, 이수상(2011)은 2010년대 초반까지도 다문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고 다문화 이용자의 모국어 자료들에 대한 선정과 입수 경로가 드물어 수서에 불편함이 컸다고 하였다. 노지현(2008)은 다문화 장서의 목록 규칙이 표준화되

지 않아 외국어 도서들의 목록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표준화된 목록지침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한운옥, 김수경, 조미아(2009)는 2010년대 이전에는 다문화 장서 개발의 기준도 정립되지 않아 다문화 장서의 수서와 목록, 대출의 모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

점차 도서관의 다문화 자료 환경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루트로 장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지원이 더욱 늘어나며 다문화 서비스는 확대되었다. KOLASIII와 도서관 전산 시스템에 국제표준인 유니코드를 지원하게 되어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자료의 이용은 한층 활성화가 되었다.

### 2.3 도서관의 다문화 장서평가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도서관의 다문화 소장장서의 보유현황을 분석하는 장서 구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전상필(2015)은 서울 지역 7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소장도서를 중심으로 장서의 입수와 장서 구성을 분석하여 다문화 장서의 보유량이 부족하며 소장 비율과 구매 횟수가 낮아 다문화 장서의 입수를 개선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옥정원(2016)은 인천광역시 12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장서 보유현황을 다문화 인구 대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다문화 장서는 영미 자료와 중국어 자료에 편중되어 있고 다문화 장서의 수집과 장서 구성 기준이 없었으며 이를 위한 전담 인력도 부족하여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인숙(2022)은 경기도의

31개 다문화거점도서관의 다문화 장서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전체 장서수 대비 다문화 장서의 비율은 0.12%~1.8%이며 다문화 인구 1인당 다문화 장서수는 평균 0.33권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2022년 전국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 2.38권에 비하여 아주 저조하며 31개 중 5개 도서관만 다문화장서개발지침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 분야에서 다문화 장서평가에 대한 연구는 소장도서의 보유 수준과 다문화 국가별 구성을 중심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문화 이용자들의 대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제 장서 이용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출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서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대규모 공공도서관에서도 시행되어 왔지만(양지안, 남영준, 2016; 오지은, 정동열, 2015) 다문화 장서에 관하여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대출은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로서 다문화 이용자의 대출수는 도서관의 장서 규모와 소장도서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개별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특성을 담아냄으로써 도서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출수 분석의 결과는 장서개발 정책과 수서정책의 직접적인 기초자료로서(오지은, 정동열, 2015), 대출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대출 현황과 장서구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장서개발정책과 수서정책의 근거로 삼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도서관에서 장서구성과 대출 현황 파악은 중요하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안산시 소재 특정 다문화작은도서관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장서 대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장도서와 대출 현황을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기관

본 연구의 대상 기관으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2023)이 선정되었다. 이곳은 외국인주민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다문화 이용자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문화도서관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도서관 이름에 다문화를 표명하여 도서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기준 다문화를 도서관 이름에 담고 있는 전국 26개 도서관 중에서 최초로 2008년 10월 17일에 개관하였다. 건물도 외국인주민이 방문하기 편리하도록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자리 잡았다. 2014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상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다문화 환경을 살펴보면, 안산시는 경기도의 중서부 서해안에 접하며 면적은 156.53km<sup>2</sup>로 경기도의 1.53%로 작은 편이고 도내 31개 시군 중 면적으로는 17위이다(안산시 현황, 2023). 2023년 4월 기준 총인구 68만 명으로 도내 인구로는 8위이며 전국 19위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외국인주민의 인구가 아주 많아서 2023년 1월 기

준 약 8만 8천 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12%에 달한다(안산시, 2023). 외국인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합한 숫자이며 외국인 수치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자체이다. 1970년대 말부터 안산시와 주변 지역에 4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 급증하였다. 안산시의 2개 구 중에서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외국인 비중이 2배 이상 많으며 단원구에서도 원곡동은 거주민의 80%가 외국인주민이다.

이러한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에 소재한 대상 도서관은 이름과 면적은 작지만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다국적 장서를 많이 보유한 다문화 특화도서관이다. 대상 도서관에 따르면 한국어 포함 전 세계 25개 국가의 언어로 구성된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어 도서는 한국어 도서보다 훨씬 많다고 하였다. 김인숙(2022)의 연구에서 경기도 내 31개 다문화거점도서관이 보통 5-10개 언어의 다문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대상 도서관은 명실공히 다국적 장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도서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먼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작은도서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대상 도서관 명을 검색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작은도서관의 운영 관리상의 정보(도서관 명, 법인, 주소, 개관, 특화, 운영시간, 운영일, 소장자료, 인력, 예산,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홍보 등 항목)가 담긴 통계결과표 엑셀 파

일이 제공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검색 시 결과 수치만 볼 수 있고 엑셀 파일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수집하였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정보나루는 전국의 공공·작은도서관들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소장도서와 대출데이터를 도서관별로 수집하고 집계하여 소스테이터를 엑셀과 텍스트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정보나루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웹상에서 시각화하여 공공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대상 도서관 명으로 검색하면 현재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별 소장도서 및 대출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ISBN, 주제 협로, 등록일자, 등록일 이후 누적 대출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별명]).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상 도서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였다.

두 가지 데이터의 공통 기간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았다. 2022년 기준으로 소장도서수의 경우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약 1만 4천 개인 반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데이터는 약 1만 1천 개로 표기되어 차이가 났다. 대출수의 경우 정보나루 시스템은 도서가 도서관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누적 대출수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대출수에서 이전 연도의 대출수를 삭감하여 각 해당 연도별 대출수를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데이터 수치는 역시 상이하였다.

두 가지 데이터의 오차에 대하여 담당 기관에 각각 문의한 결과 정보나루는 개별도서관에서 연계된 도서관시스템에서 정보나루의 서버로 직접 수집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상 데이터의 수

정, 변경이나 누락은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된 대로 수치는 제시된다고 하였다. 데이터의 차이는 대상 도서관이 도서를 정리나 폐기할 때 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때 소장도서 수나 대출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정보나루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정보나루의 시스템 관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업체가 매년 바뀌고 있어서 데이터 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정보나루의 주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나루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전국의 공공·작은도서관에 매년 개별도서관의 데이터를 웹상에서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도서관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오차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상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게 되었다. 대상 도서관은 2023년부터 안산시 중앙도서관에 연계된 웹 기반 도서관 자료관리 솔루션인 알파스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장도서와 대출, 반납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상 도서관의 시스템을 검색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소장도서수, 대출수, 이용자수, 직원수 등의 데이터 값을 검색하여 수치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장도서와 대출된 도서 명단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 데이터는 개별도서의 상세정보(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저자, 등록, 권, 복분, 발행자, 발행년, 형태, 가격, ISBN, 누적대출건수 등)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출된 도서의 명단이 대출수 검색 결과 수치보다 훨씬 적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대상 도서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보나루의 데이터와 교차 확인하며 함께 활용하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데이터는 개별도서 정보가 없으므로 세부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추가로 대상 도서관의 사서와 면담을 통하여 도서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답변을 받았다.

데이터의 범위는 2016부터 2022년까지 7년간으로 정하였다. 데이터값이 2016년부터 모든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였고 최근 연도인 2022년까지 포함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던 2020년-2021년 기간에는 도서관의 개관과 폐쇄 시기가 다수 있었으므로 데이터값도 작았으나 2022년은 정상적으로 연간 개관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엑셀에서 통계처리,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소장도서는 대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도서로 한정하였다. 연속간행물이 2016년 20종에서 2022년에는 11종이 있으나 그 수가 작아서 포함하지 않았다. 안산시 중앙도서관이 2023년 1월부터 관내 모든 공공·작은도서관의 도서 온라인 검색, 대출, 상호대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2022년에는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대출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대상 도서관의 2022년도 이용자수, 등록회원수와 직원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단계는 소장도서의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언어별 주제별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소장도서수, 대출수, 장서회전율, 이용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소장도서의 언어별 분포와 비중을 살펴보고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다문화 이용자들의 언어별

장서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KDC 주제별로 소장도서수, 대출수, 각 비중과 장서회전율,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주제별 장서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3단계는 소장도서의 누적 대출수를 기준으로 개별도서별로 대출수와 비중, 누적 합계를 산출하여 가장 이용도가 높은 도서와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밀집 지역의 특정 도서관의 7년 기간의 다문화 이용자들의 장서 대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되었고 수집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선정한 데이터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 4. 분석 절차 및 결과

##### 4.1 대상 도서관의 현황

분석 1단계는 대상 도서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이용자수, 근무하는 직원수를 살펴보았다. <표 1>은 대상 도서관의 이용자수와 인력 현황이 제

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이용자수는 도서관의 방문자수를 말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안산시의 중앙도서관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검색이나 대출 활동은 불가하여 이용자들은 도서관 건물에 직접 방문하여야 도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도서관이 외국인지원 본부에 위치하여 외국인 이용자들은 지원센터에 방문하였다가 도서관에 들르는 일이 많다고 한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연간 총 이용자수에 연간 운영일수를 나눈 값이다. 등록회원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수는 2020년은 코로나 시기로 도서관이 개관한 일시가 적어 이용자가 900명 이하였으며 2021년부터 많이 회복하여 2022년에는 정상적인 이용자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 일일 방문자 평균이 2021년 이후로 18명으로 2023년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용자가 당시에는 연간 수치가 아닌 누적 이용자수로 기입되어 5-7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수치 외에는 다른 데이터가 없었다.

<표 1> 이용자 및 직원 현황(2016-2022)

연도	이용자 현황			직원 현황			
	연간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연간 등록회원수	상근 (명)	시간제 (명)	자원 봉사자	사서 자격증보유자
2016	24374*	83	2214	2	1	31	1
2017	26400*	88	2428	2	1	40	1
2018	31779*	107	2564	2	1	40	1
2019	28062*	103	2683	2	1	40	2
2020	889	35	2798	2	0	0	1
2021	3310	18	2818	2	0	0	1
2022	4495	18	2872	2	1	0	1

\* 2016년-2019년은 누적 이용자가 기입되어 아주 많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직원과 시간제 직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지원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3년에 상근과 시간제 합쳐서 직원이 2명, 사서 자격증 보유자 1명이었다가 2014년부터 상근직원은 2명, 시간제 직원 1명으로 1명이 충원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같은 직원수를 유지하고 있다(2020-2021년 제외).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인 봉사자와 비정기적 봉사자를 합한 수치로 정기적 자원봉사자가 10명, 비정기적 자원봉사자 30명으로 총 40명이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7년 이후 같은 인원이 봉사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 도서관은 2016년부터 7년간 직원수의 증가는 없이 증가하는 이용자들을 서비스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연도별 소장도서와 대출 분석

분석 2단계는 소장도서의 이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대상 도서관의 소장도서수, 도서의 대출수,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소장도서수와 대출수는 대상 도서관의 알파스

시스템에서 검색으로 제공된 결과 수치를 활용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였다. 장서회전율은 소장도서의 대출수를 소장도서수로 나눈 값으로 장서의 대출 이용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는 장서구성의 이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서회전율이 클수록 도서의 대출수가 많음을 의미한다(오지은, 정동열, 2015). 또 이용계수(Use Factor)는 전체 소장도서에 대한 특정 그룹(특정 주제, 시기 등 부분집합)의 이용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역시 소장도서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된다(Bonn, 1974). 즉, 도서관의 총 대출수에서 특정 그룹의 대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소장도서수에서 특정 그룹의 소장도서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값이다(Bonn, 1974).

$$\frac{[(\text{특정 그룹의 총대출수} \div \text{도서관의 총대출수}) \times 100]}{[(\text{특정 그룹의 장서수} \div \text{도서관의 총장서수}) \times 100]}$$

$$[(\text{특정 그룹의 장서수} \div \text{도서관의 총장서수}) \times 100]$$

이용계수가 1.0보다 크면 활발하게 장서가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오지은, 정동열, 2015). 대상 도서관의 2016년-2022년 7년간의 연도별 소장도서수, 대출수의 현황을 장서회전율, 이용계수와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도별 소장도서 대출 현황

연도	소장도서수	대출수	장서회전율	이용계수
2016	8,752	1,082	0.12	0.80
2017	9,258	1,162	0.13	0.81
2018	9,743	1,322	0.14	0.87
2019	10,272	1,383	0.13	0.87
2020	10,774	1,782	0.17	1.07
2021	11,253	1,611	0.14	0.92
2022	11,657	2,779	0.24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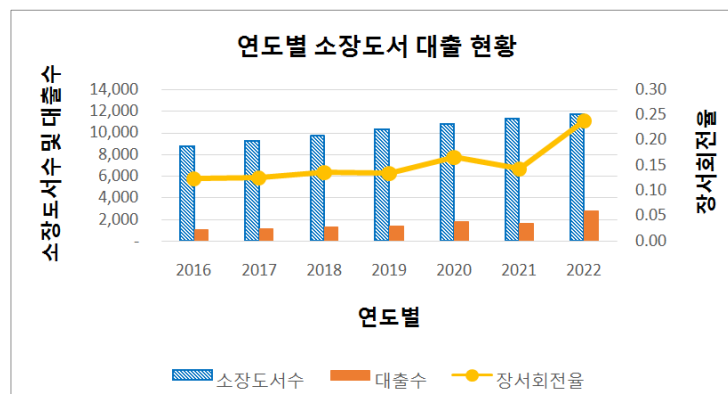
대상 도서관의 소장도서수는 2016년에 약 8천7백 권에서 매년 약 500권씩(2021년은 400권으로 제외)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만 천6백 권에 이르렀다. 대상 도서관은 매년 예산에서 도서 구매비로 천만에서 천2백만 원 정도를 사용해 오다가 2020년-2021년에는 6백만 원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7백8십만 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중이라고 한다.

동 기간 도서 단행본의 대출수는 1천여 건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도서관이 개·폐관을 거듭하던 2020년에도 대출은 꾸준히 늘었으며 2021년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2019년에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 완전 개관을 하면서 약 2천7백 건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과 대출수 증가는 소장도서의 증가분보다 훨씬 높으며 작은도서관에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서회전율은 대출수와 함께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22년에는 0.24까지 늘어 대출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용계수도 함께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7로 1.0을 상회하였고 2022년에는 1.54까지 늘었다. 이러한 이용계수의 증가는 대상 도서관의 장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변화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소장도서수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대출수도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장서회전율 선이 2019년까지 유지하다가 2021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2년은 아주 증가하였다. 대상 도서관의 대출 현황을 국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소장도서수, 대출수와 비교해 보겠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제시된 2022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의 1관당 장서수는 99,193권, 1관당 대출도서수는 111,824건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2022년 1관당 장서수는 9,427권 대출도서수는 2,755건이다. 대상 도서관의 소장도서수는 공공도서관 평균 장서수의 약 12%를 구비하고 대출수는 2.5% 정도로 작은 대출량을 보이지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장서수는 24%가 많으며 대출수는 약 9% 높다. 그러므로 대상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평균보다 높은 소장도서수를 보유하며 대출수도 좋은 실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소장도서 대출 현황

### 4.3 언어별 소장도서와 대출 분석

다문화 장서 구성을 보기 위하여 언어별 소장도서와 대출 구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도서관은 다문화도서관으로서 다국적 언어로 된 도서들을 갖추어 제공하고 있다. 언어별 분석을 위하여 개별 소장 및 대출 도서의 언어 표기 데이터가 필요하였다. 각 도서의 텍스트가 표기된 언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알파스시스템에서 도서를 검색하였을 때 청구기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상 도서관에서는 도서가 도서관시스템에 등록되고 목록이 작성될 때 표기 언어가 외국어인 경우는 청구번호의 첫 자리에 언어명을 먼저 추가하고 주제분류번호를 넣고 청구기호로 작성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다문화 도서관의 청구기호의 예를 들면 러시아843-티888○, 중국833.6-고29ㅅ, 베트남717.6-레96○ 등이다. 한국어인 경우는 청구번호에 언어 표기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알파스시스템에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소장도서를 검색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개별도서의 청구기호가 포함되어 언어코드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개별도서의 연간 대출수가 제공되지 않고 등록일 이후의 누적 대출수만 제공하였다. 또 알파스시스템에서 2022년 기준 대출도서 명단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천여 권의 도서 명단만을 볼 수 있어 더 차이가 났다.

또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살펴보면 개별도서에 대한 세부 정보 중에서 대상 도서관의 청구기호는 없었으나 ISBN이 있어서 고유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었다. ISBN은 도서의 국별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서의 언어를 짐

작할 수 있다. 위에서 청구기호의 예를 든 도서의 ISBN은 각각 9785389148819, 9787555912095, 9786047340910이다. ISBN에서 첫 세 자리 978 다음 넷째 자리부터 국별번호로 지정되는데 러시아는 978-5, 중국은 978-7, 베트남은 978-604이다. 이 번호를 통해 도서의 해당 국가를 짐작할 수 있으나 국별번호는 도서가 쓰인 표기 언어가 아니라 그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가 소재한 국가의 국별번호”를 지칭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2018, 68). 그래서 국가번호가 도서의 표기 언어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어로 된 도서라도 국내에서 출판되면 한국 번호를 넣게 되므로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한 국가의 국별번호를 여러 개를 지정하는 국가가 다수 생겨났고 국별번호의 자릿수도 점점 길어짐으로 ISBN으로 언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정보나루의 데이터는 2022년 12월 기준 소장도서의 수가 알파스시스템의 수보다 약 2천여 건이나 차이가 났다. 이것은 2021년 여름 동안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서가 개조와 디스플레이 설치 등을 하면서 2천여 권의 도서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정보나루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별도서의 언어 표기 정보를 알기 위하여 알파스와 정보나루의 두 가지 데이터를 서로 매칭하여 공통으로 포함된 소장도서 명단을 추출하게 되었다.

소장도서 매칭은 2022년 12월 기준 알파스의 소장도서 항목과 정보나루의 소장도서 항목을 ISBN, 서명, 저자명의 순으로 3단계로 매칭하여 확인하였고 소장도서의 언어별 데이터가 포함된 도서 명단을 추출하였다. 알파스의 ISBN

이 누락되거나 정보나루의 ISBN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서명, 저자까지 포함하여 매칭하였다. 데이터의 ISBN, 서명, 저자명 등이 공란이나 불완전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대칭된 도서명 단은 최종 소장도서 10,241권과 대출수 3,785건을 추출되었다. 이 수치는 대상 도서관이 알파스시스템에서 검색 결과로 나온 2022년 소장도서수, 대출수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개별도서 정보와 대출수를 보여주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언어별, 주제별, 개별도서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도서는 청구기호의 언어 표기를 기준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25개 언어가 사용 중이었다. 언어별 소장도서수와 대출수를 산출하고 전체 소장도서수와 대출수에서 각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또 언어별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4.2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표 3>은 2022년 기준으

<표 3> 언어별 소장도서와 대출 현황

	언어	언어별 소장도서수 (소장도서수 비중)	언어별 대출수 (대출수 비중)	언어별 장서회전율	언어별 이용계수
1	한국	2,784(27.18%)	1,282(33.87%)	0.48	1.26
2	중국	1,409(13.76%)	954(25.20%)	0.68	1.83
3	영미	1,094(10.68%)	734(19.39%)	0.67	1.82
4	베트남	638(6.23%)	73(1.93%)	0.11	0.31
5	인니	596(5.82%)	0(0.00%)	0.00	0.00
6	러시아	564(5.51%)	418(11.04%)	0.74	2.01
7	필리핀	500(4.88%)	21(0.55%)	0.04	0.11
8	태국	495(4.83%)	25(0.66%)	0.05	0.14
9	일본	350(3.42%)	20(0.53%)	0.06	0.15
10	몽골	349(3.41%)	102(2.69%)	0.29	0.79
11	캄보디아	337(3.29%)	0(0.00%)	0.00	0.00
12	우즈베키스탄	238(2.32%)	48(1.27%)	0.20	0.55
13	네팔	192(1.87%)	24(0.63%)	0.13	0.34
14	스리랑카	178(1.74%)	14(0.37%)	0.08	0.21
15	파키스탄	126(1.23%)	3(0.08%)	0.02	0.06
16	카자흐스탄	118(1.15%)	34(0.90%)	0.29	0.78
17	프랑스	85(0.83%)	3(0.08%)	0.04	0.10
18	말레이시아	54(0.53%)	13(0.34%)	0.24	0.65
19	스페인	43(0.42%)	10(0.26%)	0.23	0.63
20	방글라데시	37(0.36%)	2(0.05%)	0.05	0.15
21	독일	28(0.27%)	5(0.13%)	0.18	0.48
22	이란	13(0.13%)	0(0.00%)	0.00	0.00
23	인도	5(0.05%)	0(0.00%)	0.00	0.00
24	라오스	4(0.04%)	0(0.00%)	0.00	0.00
25	아랍	4(0.04%)	0(0.00%)	0.00	0.00
	합계	10,241(100%)	3,785(100%)	-	-

로 언어별 소장도서와 대출 현황을 소장도서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소장도서의 언어별 분포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어 도서와 외국어 도서의 비율이 각각 27%와 73%로 다문화 도서의 비중이 전체 소장도서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언어별로 살펴보면 한국어(27%)를 제외한 외국어 중에는 중국어 도서가 단연 많은 약 14%, 이어서 영어 도서가 약 11%를 차지한다. 영어로 출판된 도서는 영미어로 표기하는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모두 해당한다. 한국어, 중국어, 영미어의 세 언어가 합계 약 51%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22개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시의 주변 산업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으로 유입된 다문화 이용자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이 증가하였고 이 점이 소장도서 구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 국가 언어들의 합계는 소장도서의 약 47%나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유럽어가 1.5%가량 있고 이란어와 아랍어가 극소수지만 별도로 표기되고 있다.

언어별 대출수를 살펴보면 한국어 도서가 가장 많은 약 34%를 이루고 있다. 외국어 중에는 중국어 도서가 가장 많은 25%나 비중을 차지하여 다문화 이용자는 중국어 사용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미어가 약 20%를 이루어 한국어, 중국어, 영미어가 합계 대출 약 80%에 육박한다. 이 점은 옥정원(2016)의 다문화 장서가 영미 자료와 중국어 자료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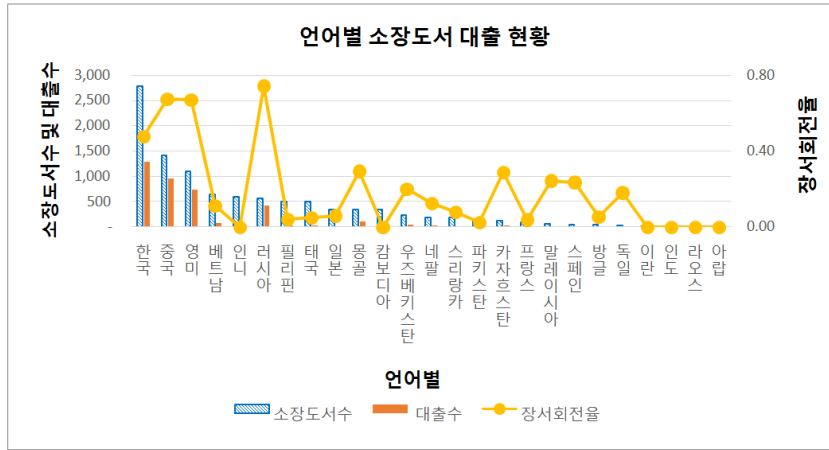
되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다음으로 러시아어 도서의 대출이 눈에 띄는데 소장도서 수는 약 5.5%이지만 대출수는 418건으로 11%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장서회전율도 높고 이용계수는 2.01이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여 가장 이용성이 높은 언어의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상 도서관의 이용자 중에 러시아 유입인구가 최근에 아주 많아졌음을 반영하고 있고 소장도서수를 더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몽골이 소장도서수 대비 대출수는 높아 이용계수가 높은 편이다.

장서회전율은 중국, 영미, 러시아가 높으며 한국어는 소장도서수가 많아 이들 국가보다 낮다. 이용계수는 역시 러시아가 가장 높으며 중국, 영미, 한국어, 몽골, 카자흐스탄의 순서이다. 언어별 소장도서수와 대출수를 소장도서수 기준으로 정렬하였고, 장서회전율을 추가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앞서 <표 3>과 같이 한국어, 중국, 영미어의 소장도서와 대출수가 모두 가장 높은 언어들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인니, 러시아가 소장도서가 많다. 러시아는 대출수는 네 번째로 높고 장서회전율은 가장 높으며 중국어, 영미어가 다음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4 주제별 소장도서와 대출 분석

대상 도서관 소장도서의 주제별 소장장서와 대출 현황,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살펴보았다. 한국십진분류(KDC)의 주제 분류 기호 단위에서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900 역사까지의 10개의 주제 분야를 기준으로 주제별 소장도서수와 대출수를 산출하였다. 소장도



〈그림 2〉 언어별 소장도서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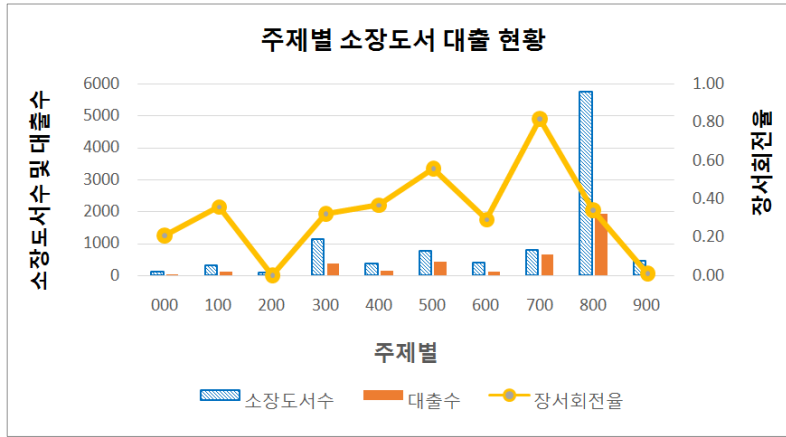
서수는 앞서 언어별 분석에서 추출한 소장도서 수, 대출수를 활용하여 주제별 소장도서수를 계수하고 소장도서 비중은 전체 소장도서수에서 주제별 소장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또 주제별 대출수를 계수하고 대출수 비중도 전체 대출수에서 주제별 대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도 4.2와 동일한

방법으로 값을 구하였다. 10개 주제별로 소장도서수(소장도서 비중 포함)와 대출수(대출수 비중 포함),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를 계산하여 주제 순으로 정렬하면 〈표 4〉와 같다.

주제별 비교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소장도서수와 대출수를 주제 순으로 막대그래프로 그리고 장서회전율을 선으로 추가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4〉 주제별 소장도서와 대출 현황

순위	주제 분류	주제별 소장도서수 (소장도서수 비중)	주제별 대출수 (대출수 비중)	주제별 장서회전율	주제별 이용계수
1	000 총류	111(1.08%)	23(0.61%)	0.21	0.56
2	100 철학	327(3.19%)	118(3.12%)	0.36	0.98
3	200 종교	101(0.99%)	0(0.00%)	0.00	0.00
4	300 사회과학	1,141(11.14%)	365(9.64%)	0.32	0.87
5	400 자연과학	375(3.66%)	139(3.67%)	0.37	1.00
6	500 기술과학	763(7.45%)	424(11.20%)	0.56	1.50
7	600 예술	397(3.88%)	117(3.09%)	0.29	0.80
8	700 언어	798(7.79%)	651(17.20%)	0.82	2.21
9	800 문학	5,758(56.22%)	1,944(51.40%)	0.34	0.92
10	900 역사	470(4.59%)	4(0.11%)	0.01	0.02
합계		10,241(100%)	3,785(100%)	-	-



〈그림 3〉 주제별 소장도서 대출 현황

〈표 4〉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주제별 분포를 보면 800 문학 분야는 10개 주제 분야에서 소장도서수가 독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소장도서수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수 비중도 51%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와 대출수가 문학 분야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다문화 이용자들도 문학류 우선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 도서관의 다문화 이용자들은 모국의 언어로 된 문학 분야 도서를 많이 대출하여 모국의 정서를 느낄 기회를 접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학류 도서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820 중국문학, 840 영미문학, 830 일본문학, 810 한국문학이 소장도서수와 대출수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언어별 분석과 같이 중국어로 쓰인 중국문학도서가 가장 많이 대출되고 있었다. 이런 문학류의 높은 대출수에도 문학류의 장서회전율은 0.34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다른 주제 분야보다 대출수가 아주 높지만, 소장도서수가 동시에 월등하게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소장도서수가 많은 300 사회과학 분야는 소장도서수와 대출수가 모두 문학류의 약 1/5 정도인 10-11%를 보인다. 그래서 장서회전율은 문학류와 비슷하고 이용계수는 문학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세 번째로 소장도서수가 많은 700 언어 분야는 소장도서는 7.8%이지만 대출수의 비중은 17%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장서회전율이 0.82로 10개 주제 분야에서 가장 높으며 이용계수도 2.21로 단연 가장 높다. 그래서 언어류는 장서의 이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500 기술과학 분야는 네 번째로 소장도서수와 대출수가 높으며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술과학도 장서의 이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로써 10개 주제 중에서 문학, 사회과학, 언어, 과학기술의 4개 분야 소장도서 합계는 약 83%, 대출수는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언어(2.21), 기술과학(1.50), 자연과학(1.0), 철학(0.98), 문학(0.92), 사회과학(0.87), 예술(0.80), 총류(0.56),

역사(0.02), 종교(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700 언어, 500 기술과학, 400 자연과학의 3개는 이용계수의 기준값(1.0)을 상회하므로 이용 대출이 높은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철학, 문학도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총류, 역사, 종교 분야는 이용 대출이 아주 낮은 분야이다. 대상 도서관의 주제별 평균 이용계수는 0.89로 소장도서의 이용 대출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장서구성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5 개별도서별 대출수 순위

분석 3단계는 개별도서별로 누적 대출수와 비중, 비중누적 합계를 산출하여 이용도가 가장 높은 상위권 도서를 파악하고 대출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소장도서들은 4.2에서 추출한 소장도서 명단과 대출수로 계산하였다. 대상 도서관의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대출이 1회 이상 발생한 소장도서들은 8,030권이고 대출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도서수는 2,211권으로 제외하였다. 8,030권에 대한 등록일 이후 누적 대출수를 도서별로 집계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도서의 대출수를 전체 대출수 대비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하였고 비중값을 누적으로 합산하여 누적 대출수 누적 합계를 산출하였다. 개별도서의 대출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도서명, 누적 대출수, 누적대출수 비중과 누적 합계를 지면 관계상 상위권 중심으로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상위 20위 중에서 6권은 한국어, 14권은 중국어 도서로 두 언어가 가장 많으며 주제별로는 590 생활과학, 810 한국문학, 710 한국어에 해당하였다. 중국어 도서 14

권 중에서 12권이 요리책이고 2권은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시리즈물이다. 대출수가 가장 많은 단행본 도서는 중국어 『過癮川湘菜』이고 사천, 후난지역 요리책이다. 한국어 도서는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시리즈가 20위 내에 5권이 올라 있고 이들 5권의 대출수를 합치면 총 490회로 미생시리즈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어 학습을 위한 중국어 교재가 18위 한국어 교재가 19위에 위치하여 다문화 이용자들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도 엿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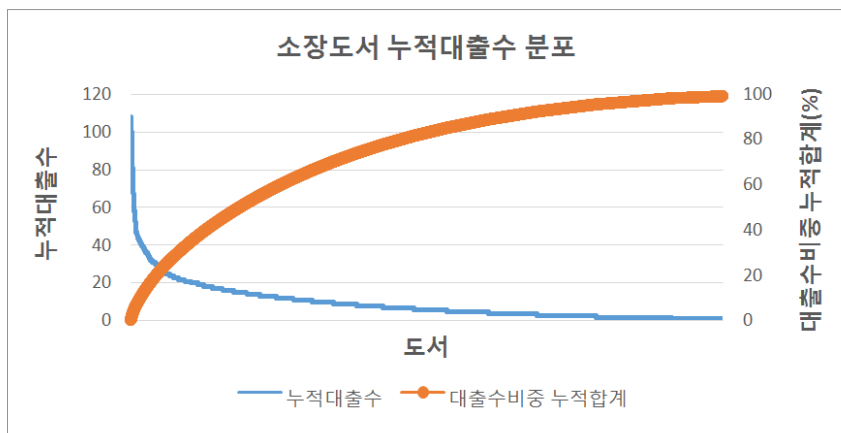
20위권 밖의 도서들을 보면 전체 누적 대출의 30%에 해당하는 도서는 587권으로 대출 23회 발생하였고 전체 소장도서의 5.7%에 해당하였다. 누적 대출의 50%는 1,348권으로 15회가 대출되었고 전체 소장도서 중에서 13%에 해당하였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동물의 도서가 아주 많아지는데 대출수가 1회 발생한 도서는 순위 6,698등부터 8,030등까지 동물로 1,333권이며 이는 전체 소장도서의 13%를 차지한다. 전체 소장도서의 누적대출수를 기준으로 도서별 누적대출수, 대출수비중 누적합계를 분포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도서별 누적대출수는 상위권 극소수의 도서들의 대출 비중이 탁월하게 높아 전체 도서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하위권 도서들은 낮고 길게 이어지는 롱테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출수 비중의 누적 합계는 완만한 포물선의 모양을 보여준다. 파레토법칙을 적용한 80/20 법칙(Trueswell, 1966)은 도서관의 대출 80%는 20%의 장서가 차지한다는 뜻이다. 80/20 법칙이 적용되는지 보기 위하여 대출수비중 누적합계 80%



〈표 5〉 대출수 기준 소장도서 순위

순위	도서명	누적대출수(대출수 비중)	대출수비중 누적합계
1	過癮川湘菜 7号	108(0.16%)	0.16
2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권	106(0.15%)	0.31
3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1권	102(0.15%)	0.46
4	百變飯粥 8号	102(0.15%)	0.61
5	美味滋補湯 3号	101(0.15%)	0.75
6	四季養生健康吃 7号	101(0.15%)	0.90
7	食物相宜与相克 9号	101(0.15%)	1.04
8	降脂降壓健康吃 2号	100(0.14%)	1.19
9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2권	99(0.14%)	1.33
10	秘制凉拌菜 2号	94(0.14%)	1.47
11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4권	93(0.13%)	1.60
12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5권	90(0.13%)	1.73
13	調味醬 7号	90(0.13%)	1.86
14	筋道面條 9号	90(0.13%)	1.99
15	減肥瘦身健康吃 9号	87(0.13%)	2.12
16	泡菜 1号	86(0.13%)	2.24
17	宝宝生病健康吃 5号	82(0.12%)	2.36
18	30天突破韓國語	82(0.12%)	2.48
1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81(0.12%)	2.59
20	鍋仔 5号	81(0.12%)	2.71
:	:	:	:
6698	사서, 고생합니다	1(0%)	98.08%
:	:	:	:
8030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1(0%)	100%



〈그림 4〉 소장도서 누적대출수 분포

에 상응하는 도서를 보면 대출수 3,357권으로 대출수 7회를 하였고 전체 소장도서수의 32.8%에 해당하였다. 이 수치는 파레토법칙의 20%보다 12%나 상회하여 대상 도서관은 다양한 종류와 수량의 다국어 도서들이 대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다문화 이용자가 밀집한 지역의 공공·작은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장서의 적절한 구성과 이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개별도서관에서 장서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대상 기관으로 2016-2022년 7년간의 소장도서와 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대상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장서·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소장도서와 대출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다문화 지역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장서평가에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다문화 도서관의 일반적인 장서와 대출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6년 이후 대상 도서관의 등록회원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용자수도 2022년에는 약 4천5백 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소장도서수는 연간 500권씩 늘어나지만 대출수는 더 빠르게 상승함으로 소장도서수가 대출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용계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4까지 상승하여 장서의 이용도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장도서는 외국어로 된 도서가 73%로 한국어보다 약 3배나 많다. 언어별로 한국어(27%), 중국어(14%), 영미어(11%)가 가장 많고 그 외 22개국으로 된 다국적 언어로 된 도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출수도 한국어(34%), 중국어(25%), 영미어(19%), 러시아어(11%) 순으로 많으며 이들 언어별 도서들의 이용계수도 각각 1.0을 훨씬 상회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상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25개국이나 되는 언어로 장서구성을 다채롭게 이루고 있으며 대출이용성도 활발하다는 면에서 대상 도서관은 다문화 장서 기반의 대출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주제별로 소장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추세처럼 문학(56%)이 가장 많으며 사회과학(11%)과 언어(7.8%), 기술과학(7.5%)이 뒤따른다. 대출수도 문학(51%)이 가장 많이 대출되었고 다음이 언어(17%), 기술과학(11%), 사회과학(9.6%)의 순이다. 이용계수는 언어, 기술과학, 자연과학이 각각 1.0을 상회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개별도서별 누적 대출수로 20위 내 도서는 중국어 도서가 가장 많았고 주제는 요리와 건강에 관한 시리즈들이다. 도서별 누적 대출수의 분포는 롱테일의 형태를 보이며 대출수 누적 합계 80%는 소장도서수의 32.8%에 해당하여 대상 도서관이 다양한 종류의 다국적 장서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다문화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대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도서관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도서관을 위한 제언으로는 도서관의 이용자수와 등록회원수는 증가추세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 다문화 인구와 안산지역 다문화 이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이용자와 대출수에 발맞추어 다문화 소장도서를 우선으로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장서 구입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하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언어별 장서구성을 보면 대출기준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도서는 현재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장도서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용계수가 높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언어의 도서수를 더 늘려가야 할 것이다. 주제별로는 소장도서수는 작으나 이용계수가 높아 활발하게 대출이 되는 590 생활과학, 710 한국어, 810 한국문학 분야의 소장도서를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다문화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요구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도서를 구입하여 소장도서 이용대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특화도서관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다문화 특화도서관의 장서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복수 또는 다수의 다문화 특화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 대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나아가 다문화 도서관의 전체 전수조사로 확대한다면 다문화 장서구성과 관리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평가할 때 다문화 이용자 요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별 특성과 대출행태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인한 이용자 데이터의 접근 불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향후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문화 이용자의 구성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다문화장서개발지침이 마련되고 수서정책에도 적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별도서관이 다문화 장서를 개발하고 관리할 때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다문화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특화된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다문화 전담사서가 배치되어 다문화 거점도서관과 개별도서관의 연계와 지원역할을 해 준다면 개별도서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마다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도서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다문화 장서를 구입, 관리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통계 품질에 대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 공공·작은도서관의 장서 대출 관련 데이터는 현재 관련 기관들에서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별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기관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 저장, 배포하는 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전제하고 있다. 데

이터서비스 기관이 개별도서관에 데이터 입력을 요청할 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여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향후 이를 위한 지원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출처: <https://www.libsta.go.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2018). 한국문헌번호편람 ISBN · ISSN 7판.  
[https://www.nl.go.kr/seoji/resource/form/user/isbn\\_all\\_7.pdf](https://www.nl.go.kr/seoji/resource/form/user/isbn_all_7.pdf)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나루 [발행년불명]. 출처: <https://www.data4library.kr>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3.047>
- 김인숙 (2022).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장서관리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노지현 (2008).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9(4), 397-420.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397>
- 노지현 (2012). 한국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3(2), 5-27. <https://doi.org/10.16981/kliss.43.2.201206.5>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출처: <https://www.mcst.go.kr>
- 박성우 (2015).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상호문화 관점의 수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71-39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71>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2023). 출처: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1049618>
- 안산시 (2021). 2021 안산시다문화 · 외국인 가구통계보고서.  
출처: [https://ecatalog.ansan.go.kr/20211230\\_105203](https://ecatalog.ansan.go.kr/20211230_105203)
- 안산시 (2023). 안산시 현황. 출처: <https://www.ansan.go.kr>
- 양지안, 남영준 (2016). 대학도서관 단행본 대출이력통계를 통한 집중장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29-45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429>
- 오지은, 정동열 (2015). 공공도서관 장서평가를 위한 소장도서 이용도 및 핵심장서 분석에 관한 연구: 광진정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5.49.1.201>

- 옥정원 (201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장서 구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295>
- 이현실, 최세민, 이형선 (2011). 그림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여성의 자신감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51-2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251>
- 이혜원 (2015).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37-366. <https://doi.org/10.16981/kliss.46.2.201506.337>
- 임여주 (2018).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다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99-3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전상필 (2015). 다문화장서구성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269>
- 조용완, 이은주 (2021).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서비스.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통계청 (2023). 국가통계포털. 출처: <https://kosis.kr>
-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91-12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91>
- Bonn, G. S. (1974).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22(3), 265-304.
- Trueswell, R. W. (1966). Determining the optimal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16(1), 49-6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san City (2023). 2021 Ansan-si Multicultural Foreign Population Statistics Report. Available: [https://ecatalog.ansan.go.kr/20211230\\_105203](https://ecatalog.ansan.go.kr/20211230_105203)
- Ansan City (2023). Status of Ansan-si. Available: <https://www.ansan.go.kr>
-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2023). Available: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1049618>
- Cho, Yong-Wan & Lee, Eunjoo (2010). *Library Services in Multicultural Society*.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Cho, Yong-Wan & Lee, Soo-Sang (2011).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69-297.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269>
- Han, Yoonok, Kim, Soo-Kyoung & Cho, Mi-ah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91-12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91>
- Jeon, Sang Pil (2015). Study on Improving Multicultural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 Kim, Insuk (2022). (An) Investigation of Collections Management Practices of Multicultural Resources in Public Libraries of Gyeonggi-Provinc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outh Korea.
- Kim, Youngmee & Cho, Insook. (2011).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multicultural users on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03-1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3.047>
- Lee, Hyewon (2015).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lanning and modell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337-366.  
<https://doi.org/10.16981/kliss.46.2.201506.337>
- Lee, Hyun-Sil, Choi, Se-Min, Lee, Hyung-Sun (2011). The analysis on confidence of multi-cultural women through a picture story read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51-2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251>
- Lee, MiJung &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295>
- Lim, Yeojuo (2018). A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libraries and local organizations: focusing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99-3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20 cultural diversity policy annual report. Available: <https://www.mcst.go.kr>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big data (2023). Available: <https://www.data4library.kr>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n Bibliographic Standards Center (2018). Korean reference numbering manual ISBN-ISSN, 7th edition. Available: [https://www.nl.go.kr/seoji/resource/form/user/isbn\\_all\\_7.pdf](https://www.nl.go.kr/seoji/resource/form/user/isbn_all_7.pdf)
- Oh, Ji-Eun & Jeong, Dong-Youl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of rate of use and core collection for collection evaluation in public libraries: in the case of Gwangjin District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5.49.1.201>
- Ok, Jungwon (2016).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Collection Development at Public Librar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Park, Seong-Woo (2015). Accepting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71-39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71>
- Rho, Jee-Hyun (2008). Lesson from the cataloging experience on multicultural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397-420.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397>
-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with reference to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https://doi.org/10.16981/kliss.43.2.201206.5>
- Statistics Korea (202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https://kosis.kr>
- Yang, Ji-An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core collection through circulation statistics of books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29-453.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429>

